

학교폭력 피해아동의 학교적응과 보호요인*

School Adjustment and Protective Factors of School Violence Victims*

성지희(Jee Hee Sung)¹⁾

정문자(Moon Ja Chung)²⁾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school adjustment and protective factors of school violence victims in 1128 5th and 6th graders. Children completed questionnaires.

Descriptive analysis showed that 52.5% of the participants had experienced school violence at least once over the past 9 months. Boys reported more school violence than girls. Victims of school-violence experience showed lower levels of school adjustment than other students, but victims with protective factors of high self-esteem, teacher's support, internal locus of control, and parents' democratic fostering attitude showed better school adjustment. While these protective factors had a positive influence on children's school adjustment, friend's support had a negative influence.

Key Words : 학교폭력(school violence), 학교적응(school adjustment), 보호요인(protective factors), 자존감(self-esteem), 교사지지(teacher's support).

1. 서론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피해실태를 알아보고,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키는 보호요인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폭력의 대상, 형태, 범위 그리고 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가 내려져 한 가지로 정의 할 수는 없지만 선행연구들에 기초한 학교폭력의 정의는 크게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장소, 폭력행위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가해자는 협의의 정의에

* 본 논문은 2006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임.

¹⁾ 연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연구원

²⁾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Moon Ja Chung, Departmen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Yonsei University 134 Shinchon-dong, Seodaemun-gu, Seoul 120-749, Korea
E-mail : narihi@daum.net

의하면 학생 신분을 갖고 있는 자로 한정되나 넓게는 학교 주변 불량배나 교사와 부모도 가해자로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피해자의 신분은 학생으로 한정된다. Mulrine(1996)은 학교폭력이란 학생들이 학교에서 경험하는 폭력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폭력이라도 그것이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이들 모두를 학교폭력으로 보아야 한다는 광의의 개념을 주장한다. 한편 다른 연구자들은 학교폭력의 범위를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이나 학교 주변과 등하교 길에서 발생하는 폭력으로 한정시키기도 한다(임영식, 1997). 하지만 학교폭력을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폭력으로만 제한 할 경우 등 하교길, 학원가, 오락실, 독서실 등과 같은 곳과 같이 학교 밖 근처에서 발생하는 폭력 건수가 증가추세에 있는 경우를 간과할 가능성이 높다(청소년폭력예방재단, 1998). 학교폭력의 유형으로 학생간의 폭력이나 학교 주변에서 일어나는 폭력 등 물리적 유형의 폭력뿐 아니라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려는 의도를 가진 어떠한 행동 즉, 따돌림이나 욕설과 같은 심리적이고 언어적인 폭력도 학교폭력으로 보고 있다(이장현·우룡, 2001).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를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모두 학생의 신분으로서 학교 안이나 학교 근처에서 발생하는 개인이나 집단에 의한 신체적 폭행, 금품갈취, 위협이나 협박, 욕설이나 폭언, 괴롭힘, 집단 따돌림을 모두 포함하고자 한다.

최근 학교폭력은 증가추세에 있으며, 갈수록 흉포화, 저연령화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학교폭력의 유형도 점차 다양해져 가고 있으며, 폭력의 정도도 심해지고 있다. 최근에 같은 학교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중학생이 구속되는 일도 있었다(YTN, 2005. 10. 7). 교육부의 실태조사 결과(2005) 일선 초·중·고생의 14.4%가 불량서

클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 가운데 다른 학교와 연계된 경우가 44%, 상급학교의 조직이나 성인 조직과 연계된 경우가 26.5%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는 각종 질병이나 비위생적인 급식, 유괴, 집단 따돌림, 학교 폭력 등의 위협에 노출돼 있는 어린이를 위한 보험 상품이 시판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잘 알 수 있다(연합뉴스, 2005. 5. 4).

학교폭력의 문제에서 더욱 우려가 되는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연령이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자녀안심운동 서울협의회(2001)는 학교폭력의 경험을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빼앗김, 신체적 폭행, 따돌림이나 괴롭힘, 폭력써클가입 강요 등으로 나누어 처음 경험한 시기를 물어 보았다. 전체 응답자 중 초등학교 4-6학년 때 처음 돈/물건을 빼앗겨본 적이 있는 학생이 23.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괴롭힘/따돌림이 7.2%, 신체적 폭행이 6.2%, 폭력써클가입 강요가 1.4%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 보고한 2004년도 학교폭력 신고현황을 보면 2003년에 비해 무려 44.4%나 증가하였으며, 대상별로는 중학생이 49.7%, 고등학생이 23.1%, 초등학생이 19.8%이다. 초등학생의 경우 5, 6학년이 전체 대상초등학생의 77.6%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상급학교로 이어지는 대부분의 초기 학교폭력이 이 시기에 형성된다는 것을 말해준다(Rigby, Cox, & Black, 1997). 김준호·김선애(2000)의 연구에서도 중학교 남학생 피해율인 61.3%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초등학교 남학생의 피해율(59.5%)을 보고하였다. 청소년보호위원회(2002)의 연구결과에서도 한 달에 한번 이상의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다는 남학생의 비율이 30%, 여학생이 15%로 상대적으로 남학생의 학교폭력 경험이 더욱 빈번하다. 초등학생의 경우 놀림이나 집단따돌림 같은 유형이 학

교폭력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이춘재·곽금주, 2000). 이러한 저연령화 현상은 유치원 아동(6.5%)에게도 일어나고 있다(청소년보호예방재단, 2004).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초등학교가 학교폭력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에 관한 연구가 주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소수에 달한다.

학교폭력은 피해학생이 쉽게 폭력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있으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위협과 상해를 포함한 심리적 고통을 줄 수 있어 매우 부정적인 경험이 된다.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어야 되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학교폭력이 아동에게 미치는 악영향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폭력 경험과 같은 아동기의 스트레스는 학업부진, 우울, 불안감, 공격성, 문제 행동 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이미 선행 연구들에서 논의된 바 있다(예; 김정희, 1987). Hoover, Oliver, & Hazler(1992)는 피해를 당한 학생들의 90%가 학교성적의 저하를 경험하였다고 보고 하였다. 이시형 과 동료들(1997)은 다른 학생들로부터 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외로움과 우울증 정도가 심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심리적 부적응은 전반적인 학교생활에도 영향을 미친다. 폭력을 당한 후 나타나는 행동반응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이나 공부 등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32.3%)”, “그런 일을 다시 당할까봐 학교 가는 것이 너무나 싫어졌다.”는 응답과 “사람들에 대한 불신감으로 사람 만나는 것을 피하게 되었다.”는 응답이 27.7%를 차지하였다. 자살충동과 자살기도를 합하면 약 15% 정도로 폭력 피해의 고통을 이길 수 없다는 극단적 사고와 행동으로 꽤 많은 청소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서동미, 2003). 학교폭력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폭력,

자살, 약물복용의 문제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으며, 또 다른 학교 부적응을 낳게 되어 제 2의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될 위험이 증가된다. 초등학교 시기에 발생한 주변사람들의 폭력 행동에 대해 적절한 대처를 못하고 피해를 당해온 학생은 자존감이 낮고, 사회적으로 위축되며, 자살을 시도기도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분노와 공격성, 폭력 행동의 학습으로 인해 자신보다 약한 학생을 상대로 또 다른 폭력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

이처럼 학교폭력의 위험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을 당하는 학생들이 모두 정신적인 후유증이나 심리적·사회적 부적응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유사한 위험상황에서도 학교생활이 원만하며, 발달 과업 수행에 이상이 없으며,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다. 폭력피해의 경험이 여타의 스트레스 상황처럼 모든 개인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아동과 청소년의 적응에 관한 연구들도 부정적인 결과를 낼 가능성이 높은 위기환경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완충시켜주고, 긍정적인 결과를 유도하는 요소(Garmezy, 1985)인 보호요인을 밝히는 쪽에 치중하고 있다. Beam 외(2002), Mcknight(2002)의 연구도 주로 위험요인과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보호요인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평범한 사람들도 고위험 환경, 스트레스 상황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휘할 수 있는 보편적인 적응기제(Masten, 2001)가 있어 동일한 위험요인에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청소년 개인이 이 위험요인을 어떻게 지각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 이에 대한 정서적, 행동적 대응 양식이 매우 다를 수 있다. Gore와 Eckenrode(1996; 박현선, 1998 재인용)는 보호요인을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자원으로 대별하였다. 개인적 요인으로는 신체적 건강상태, 성격기질과 같은 요인이나 자존감, 통제신념과

같이 사회적 환경과 밀접하게 연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환경적 자원으로는 지지적인 사회적 관계를 갖는 지역사회와의 유대가 있다. Cohen과 Hoberman(1983)은 개인이 대인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자원은 괴롭힘 경험을 가진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자원변인이라고 하였다. 아동에게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로 부모와 친구, 교사를 들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의 지지는 해롭거나 위협적인 경험을 덜 문제시하게 하고 대처 자원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학교폭력 피해라는 힘든 경험을 이겨내는데 중요한 인적자원이 된다(김정희 역, 1999). 마지막으로 개인의 능력에 대해서 보상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신념체계를 제공하는 외부의 지지체계로서 예컨대, 학교, 직장, 교회 등이 보호요소로서 기여할 수 있다(Wenar, 1994). 이스라엘의 가정폭력 경험 청소년의 탄력성에 관한 연구(Sagy & Dotan, 2001)에서는 청소년의 발달과정상 생태학적 맥락에서 접근해야함을 강조하면서 가족과 학교, 지역사회의 세 가지 보호차원에서 접근을 했다. 이상의 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보호요인을 개인내적 요인, 대인관계적 요인,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연구문제 1> 학교폭력 피해아동의 피해 유형과 빈도는 어떠하며 이는 학년과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학교폭력 피해경험 유무에 따라 아동의 학교적응에는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보호요인의 수준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아동의 학교적응에는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4> 학교적응 보호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 강남에 소재한 두 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5, 6학년생 1128명으로 5학년생이 505명(44.9%), 6학년생이 623명(55.1%)이었다. 성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남학생 617명(54.6%), 여학생 511명(45.2%)이었다. 연구대상 아동과 부모에 대한 인구론적 정보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 연구 대상 및 대상 부모의 일반적 특성 (N=1128)

특 성	구 분	전체 빈도(%)	
부모	부의 학력	초등학교졸업	1(0.1)
		중학교졸업	4(0.4)
		고등학교졸업	67(5.9)
		대학교졸업	574(50.8)
		대학원이상	471(41.8)
	무응답	11(1.0)	
	모의 학력	초등학교졸업	0(0)
		중학교졸업	7(0.6)
		고등학교졸업	115(10.2)
		대학교졸업	667(59.0)
대학원이상		327(29.0)	
무응답	12(1.2)		
가정경제수준	100만원미만	23(2.0)	
	100-200만원	112(9.9)	
	200-300만원	160(14.2)	
	300-400만원	256(22.7)	
	400만원이상	489(43.4)	
	무응답	88(7.8)	
가족구조	친부모가정	1087(96.3)	
	한부모가정	22(1.9)	
	조부모가정	4(0.4)	
	기 타	4(0.4)	
	무응답	11(1.0)	

부모학력은 아버지의 경우 대학교 졸업이 574명(50.8%)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원 이상이 472명(41.8%)으로 전체 조사대상자 중 92.6%가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다. 어머니의 경우도 대학교 졸업 이상이 667명(59%)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원 이상이 328명(29%)으로 아버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전체 조사대상자 중 81%로 많았다.

가정의 경제수준은 한 달 수입을 기준으로 월 400만원 이상이 490명(43.4%)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월 300-400만원이 256명(22.7%)이었다. 가족구조의 경우 친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 1089명(96.3%)으로 가장 높았으며, 한부모 가정이 22명(1.9%), 조부모 가정과 기타 가정이 각각 4명(0.4%)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자료에 의하면 연구대상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대체로 중산층 또는 상류층이라고 할 수 있다.

2. 연구 도구

본 연구의 종속변인은 학교폭력 피해아동의 학교적응이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으로 학교폭력 피해경험 유무, 아동의 자존감과 내적통제소재, 부모의 양육태도, 친구·교사의 지지, 교과외 요인을 선정하였다. 이 변인들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도구는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 피해경험

Olweus(1993)의 『Bully/Victim Questionnaire』와 Olweus(1991)의 『Junior Questionnaire』를 안정만(2001)이 번안하여 사용한 척도로서, 신체적 폭행, 금품갈취, 괴롭힘, 집단 따돌림, 위협이나 협박, 욕설이나 폭언 등의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험의 유무와 빈도의 정도에 따라 ‘없

다’(1점)에서 ‘일주일에 여러 번’(6점)으로 대답하도록 되어있는 6점 척도이며, 가능한 점수 범위는 6점에서 36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폭력 피해경험의 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 α 는 .68로 나타났다.

2) 학교적응

박현선(1999)이 만든 총 23문항의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하위요인으로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 7문항, 성적이나 학업 관련 7문항, 학교규범 관련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는 학교나 교사, 수업에 대한 애착과 흥미 정도, 학업에 관련해서는 성적, 성적의 주관적 의미, 공부에 대한 취미, 학업태도 등이 있으며, 학교규범준수는 교사의 지시준수, 컨닝, 지각, 정학이나 근신과 같은 징계 처벌 경험, 무단결석 등이 있다. 총 가능점수는 23점부터 92점이며, 부정적 진술 문항(1, 2, 10, 11, 17, 18, 19, 20, 21, 22, 23)은 역점수로 환산하였다. 전체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을 잘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 α 는 .84로 나타났다.

3) 보호요인

(1) 개인내적 요인

① 자존감 :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Self-Esteem Scale)를 어주경(1998)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개인의 가치, 자신감, 만족도 및 자신에 대한 비하를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 긍정적인 문항과 부정적인 문항 각각 5개씩 총 10문항으로 4점 Likert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능 점수는 10점에서 40점이다. 부정적인 문항(2, 5, 6, 8, 9)은 역채점을 해서 전체 점수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

에서 산출된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 α 는 .81로 나타났다.

② 내적통제소재 : Alva(1987)의 Youth Coping Scale(YCS)를 박현선(1999)이 변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6문항으로 4점 Likert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능 점수는 6점에서 24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내적 통제소재, 즉, 자신의 과업 수행, 성취여부의 귀인을 자신의 내부로 돌림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 α 는 .66으로 나타났다.

(2) 대인 관계적 요인

① 부모의 양육태도 : 이시형 · 이세용 · 정현희 · 박현선(1996)연구에서 개발, 구성된 양육태도 문항 중 민주적 양육태도와 관련된 하위척도 5문항을 사용하였다. 형식은 아버지, 어머니 각각에 대해서 아동이 응답하게 되어 있고, 4점의 Likert척도로 가능점수 범위는 5점부터 20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민주적 양육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함께 보기 위해 부모점수의 평균을 사용하였다. 산출된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 α 는 .84이었다.

② 친구 · 교사의 지지 : Hernandez(1993)가 제작한 학업관련 사회적지지 문항을 박현선(1999)이 연구목적에 맞게 변안하여 구성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교사와 친구에게 받는 정서적, 물질적, 평가적 지지와 관련된 총 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능점수 범위는 9점부터 36점이며 4점 Likert척도로 되어있어 점수가 높을수록 지지를 많이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 α 는 .91로 나타났다.

(3) 사회 · 환경적 요인

교과의 요인 : 학교특별활동 동아리, 학교 밖

클럽, 기타 종교모임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가를 측정한 양국선과 장성숙(2001)의 연구척도에서 그 활동에의 참여에 대한 만족도를 포함하여 이신옥(2003)이 수정하여 구성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5점 Likert척도로 된 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가능점수 범위는 3점부터 15점이다. 본 척도는 3문항으로 문항내용이 다양하므로 내적 합치도로 신뢰도를 산출하지 않았다.

3. 연구 절차

본 연구에서 실시할 척도의 신뢰도와 문항에 대한 아동의 이해 정도, 소요시간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2005년 9월 9일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강서구에 소재한 한 초등학교 5학년의 한 학급 아동 3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응답을 하면서 이해가 어렵다고 한 문장들은 수정되었으며, 소요된 시간은 15분에서 30분 사이였다.

본 조사는 2005년 9월 14일부터 9월 24일 사이에 임의 선정된 서울 강남 소재 두 개 초등학교 33학급의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은 5학년 아동 505명, 6학년 아동 623명의 총 1128명이었다. 배포된 질문지 1200부 중 1157부가 회수되었으며(회수율 96%), 응답이 불완전한 29부를 제외한 총 1128부가 최종적으로 사용되었다. 본 조사는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 실시 방법과 요령 등을 각 반의 담임교사에게 알렸으며 교사들이 질문지를 실시해 아동 스스로 모든 문항을 체크하게 한 후 수거하였다.

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학교폭력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표 2> 학교폭력 유형에 따른 피해유무 빈도분석 결과

피해유무 \ 유형	폭행 (빈도=1128)	갈취 (빈도=1128)	위협/협박 (빈도=1128)	욕설/폭언 (빈도=1127)	괴롭힘 (빈도=1128)	따돌림 (빈도=1125)	폭력피해 경험
있음 (%)	119 (10.5)	93 (8.2)	179 (15.9)	458 (40.7)	192 (17.2)	169 (15.1)	591 (52.5)
없음 (%)	1009 (89.5)	1035 (91.8)	949 (84.1)	669 (59.3)	936 (82.8)	956 (84.9)	537 (47.5)

* 중복응답

빈도분석을, 학교폭력 피해자의 성과 학년에 따른 폭력유형을 살펴보기 위해 X^2 을, 학교폭력 피해경험 유무에 따라 학교적응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보호요인의 수준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아동의 학교적응에는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피해아동만을 대상으로 보호요인 각각에 대해 상·하 집단으로 구분하여 t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보호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피해아동만을 대상으로 학교적응을 종속변인으로 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분석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의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의 피해경험과 학교적응의 관계를 알아보며, 학교적응을 돕는 보호요인의 확인과 그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1. 학교폭력의 유형과 빈도

초등학생 학교폭력 피해실태를 <표 2>와 같이 폭행, 갈취, 위협/협박, 욕설/폭언, 괴롭힘, 따돌림의 여섯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경험의 유무

를 살펴보았다.

학교폭력에 대해서 전체 조사대상자 중 52.5%가 한 번 이상 학교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하였다. 학교폭력의 유형 중 욕설/폭언(40.7%)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괴롭힘(17.2%), 위협/협박(15.9%), 따돌림(15.1%), 갈취(8.2%)의 순이었다.

학교폭력 피해자의 성에 따른 폭력유형을 X^2 으로 살펴본 결과, <표 3>에서처럼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교폭력에 많이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여섯 가지 폭력 유형중 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은 폭행($p<.001$), 욕설/

<표 3> 성별 학교폭력 유형 X^2 검증 결과

폭력유형 \ 성별	성별		X^2	
	남 (n=353)	여 (n=238)		
폭행	유	97(27.5)	22(9.3)	30.77***
	무	256(72.5)	215(90.7)	
갈취	유	67(19.0)	26(10.9)	7.43
	무	286(81.0)	212(89.1)	
위협/ 협박	유	109(30.9)	70(29.4)	2.63
	무	244(69.1)	168(70.6)	
욕설/ 폭언	유	285(80.7)	171(71.8)	13.56*
	무	68(19.3)	67(28.2)	
괴롭힘	유	124(35.1)	68(28.8)	7.97
	무	229(64.9)	170(71.2)	
따돌림	유	85(24.1)	83(34.9)	12.17*
	무	268(75.9)	155(65.1)	

* $p<.05$ *** $p<.001$

<표 4> 학년별 학교폭력 유형 χ^2 검증 결과

폭력유형	폭력유무	학년		χ^2
		5학년(%) (n=278)	6학년(%) (n=313)	
폭행	유	47(16.9)	71(22.9)	9.93
	무	231(83.1)	242(77.1)	
갈취	유	41(14.7)	51(16.5)	1.83
	무	237(85.3)	262(83.5)	
위협/ 협박	유	74(26.6)	103(33.3)	6.21
	무	204(73.4)	210(66.7)	
욕설/ 폭언	유	216(77.7)	241(76.8)	3.49
	무	62(22.3)	72(23.2)	
괴롭힘	유	83(29.9)	108(34.6)	7.26
	무	195(70.1)	205(65.4)	
따돌림	유	87(31.3)	81(26.0)	12.55*
	무	191(68.7)	232(74.0)	

* $p < .05$

폭언($p < .05$), 따돌림($p < .05$)이었다. 구체적으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폭행과 욕설/폭언을 더 많이 경험한 반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따돌림을 더 많이 경험하였다.

<표 4>는 학년에 따라 학교폭력 유형을 χ^2 검증한 결과이다. 여섯 가지 유형 중 따돌림에서만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5학년이

6학년보다 따돌림을 많이 경험하였다.

폭력의 유형과 횟수에 관한 응답 내용은 <표 5>과 같다. 폭행과 갈취의 경우 1년에 한두 번 경험하고 있다는 응답이 각각 70.6%, 86.1%로 나타났다. 위협/협박의 경우 1년에 한두 번 경험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6.1%이었다. 욕설/폭언의 경우는 일주일에 여러 번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17.4%나 되어 일상적으로 언어폭력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괴롭힘과 따돌림의 경우 “한 달에 한번 이상” 경험하였다는 비율이 각각 14.4%, 10.6%로 초등학교 10명 중 1명 이상이 한 달에 한번 이상 괴롭힘과 따돌림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 학교폭력 피해경험 유무에 따른 아동의 학교 적응

초등학교생들의 학교폭력 피해경험 유무와 학교 적응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폭력피해 경험 유무의 두 집단으로 나누어 학교적응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표 6>와 같이 폭력경험의 유무에 따라 학교적응 총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 = -5.88, p < .001$). 또한 구체적인 학교적응의 하위요인인 학교에 대한 흥미,

<표 5> 학교폭력 유형으로 본 발생빈도

횟수	유형	폭행 (%)	갈취 (%)	위협/협박 (%)	욕설/폭언 (%)	괴롭힘 (%)	따돌림 (%)
1년에 한두번		84(70.6)	80(86.1)	146(81.6)	238(52.0)	113(58.8)	115(68.3)
한달에 한번		9(7.6)	9(9.7)	11(6.1)	62(13.7)	27(14.4)	18(10.6)
한달에 두세번		8(6.6)	3(3.2)	6(3.3)	44(9.5)	15(7.7)	13(7.6)
일주일에 한번		9(7.6)	0(0)	8(4.5)	34(7.4)	17(8.8)	7(4.1)
일주일에 여러번		9(7.6)	1(1.0)	8(4.5)	80(17.4)	20(10.3)	16(9.4)
합계		119(100)	93(100)	179(100)	458(100)	192(100)	169(100)

<표 6> 학교폭력 피해경험 유무에 따른 학교적응의 차이검증 결과 (N=1128)

변인	폭력경험유무		t		
	유(n=591)	무(n=537)	통계치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학교적응총점	72.85	8.39	75.83	8.59	-5.88***
학교에 대한 흥미	22.14	3.74	23.17	3.74	-4.63***
학업성취태도	20.96	3.34	21.67	3.34	-3.57***
학교규범준수	29.75	3.53	31.07	3.30	-6.51***

***p<.001

학업성취태도, 학교규범준수 모두에서 두 집단 간 유의하게 학교적응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즉, 학교폭력 경험이 있는 아동은 경험이 없는 아동에 비해 학교적응 점수가 낮았다. 이는 학교폭력 피해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학교적응을 잘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3. 보호요인의 수준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아동의 학교적응

학교폭력 피해아동의 보호요인의 수준에 따라 학교적응 총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각각의 보호요인 점수를 중앙치를 기준으로 상·하집단으로 나누어 t-test를 실시하였다.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자아존중감, 내적통제소재, 부모양육태도, 친구지지, 교사지지, 교과외 활동 모두 상집단과 하집단에 따라 유의한(p<.001) 차이를 보였다. 즉, 보호요인 점수가 높은 상집단이 하집단에 비해 학교적응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 학교폭력을 경험했지만 상대적으로 자아존중감이 높고, 내적통제소재를 더 많이 하며, 부모의 양육태도가 더 민주적이고, 친구와 교사의 지지를 더 많이 받고 있으며, 교과외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

<표 7> 보호요인의 수준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아동의 학교적응의 차이검증 결과 (N=591)

변인	통계치		t
	평균	표준 편차	
자아 존중감	상(n=388)	75.22	9.99***
	하(n=203)	68.32	
내적 통제소재	상(n=342)	74.85	6.99***
	하(n=249)	70.08	
부모 양육태도	상(n=323)	74.58	5.62***
	하(n=268)	70.77	
친구 지지	상(n=304)	74.83	6.10***
	하(n=287)	70.75	
교사 지지	상(n=319)	75.71	9.58***
	하(n=272)	69.51	
교과외 활동	상(n=325)	74.60	5.81***
	하(n=266)	70.67	

***p<.001

하고 있는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학교적응을 잘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5. 학교적응 보호요인의 상대적 영향력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독립변인들간의 다중공선성을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를 바탕으로 .50을 기준으로 했을 때 .60의 상관을 보여 다중공선성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제외한 부의 교육수준 외에는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아동의 학교적응에 대한 보호요인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학교적응을 종속변인으로 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통제변인인 성, 학년, 가족형태, 모의 교육수준, 부모직업, 가정의 수입과 성적을 투입해 통제변인의 영향력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표 8> 학교폭력 피해아동의 학교적응에 대한 보호요인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N=533)

변인	학교적응			
	1단계 β	2단계 β	3단계 β	4단계 β
성	.23***	.21***	.21***	.21***
학년	-.12***	-.09***	-.09***	-.08**
가족형태	-.03	-.02	-.03	-.03
모교육	-.00	-.00	-.01	-.01
부직업	.03	.02	-.00	-.00
모직업	.02	.03	.02	.02
가족수입	-.01	.02	.01	.01
성적	.34***	.21***	.20***	.20***
자아존중감		.36***	.31***	.31***
내적통제소재		.16***	.12***	.12***
부모양육태도			.06*	.06*
친구지지			-.09**	-.10**
교사지지			.27***	.27***
교과외활동				.03
ΔR ²	.19***	.18***	.06***	.00
전체 R ²	.19	.37	.43	.43
전체 F	29.36***	57.86***	57.26***	53.29***

*p<.05 **p<.01 ***p<.001

통제변인 중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 학년, 성적이었으며, 설명력은 19%로 나타났다.

개인내적 보호요인인 자아존중감과 내적통제소재를 투입한 2단계에서는 전체 설명력이 37%로 통제변인만을 투입한 1단계보다 18%가 증가하였다. 자아존중감($p<.001$)과 내적통제소재($p<.001$)는 학교적응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는 학교폭력 피해아동의 대인관계적 보호요인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부모양육태도와 친구·교사의 지지 요인을 투입하였다. 2단계보다 6% 설명력이 증가하여 전체 설명력이 43%로 나타났다. 부모양육태도($p<.05$), 친구지지($p<.01$), 교사지지($p<.001$) 요인이 유의하게 학교적응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단계에서는 사회·환경적 보호요인인 교과외 활동 요인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 교과의 활동 요인은 학교적응을 설명하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전체 설명력에도 영향을 주지 않았다.

학교적응의 보호요인이 학교폭력 피해경험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통제변인 세 개(성적, 성, 학년), 보호요인 다섯 개(자아존중감, 내적통제소재, 부모양육태도, 친구의 지지, 교사의 지지)로 총 여덟 개의 변인이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설명력이 높은 보호요인은 자아존중감, 교사의 지지, 내적통제소재, 친구의 지지, 부모양육태도 순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1. 논의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피해실태를 알아보고,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학교적응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본 후, 학교폭력 피해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보호요인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 피해실태

학교폭력 피해의 실태를 알아본 결과 전체 조사대상 중 2005년 1월부터 9월 사이 학교폭력을 한번이라도 경험한 학생은 전체의 52.5%로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의 유형별 응답비율은 욕설/폭언을 경험한 학생이 전체 조사대상자의

40.7%, 괴롭힘을 당한 학생이 17.2%, 위협/협박을 당한 학생은 15.9%, 따돌림을 당한 학생이 15.1%, 신체적 폭행을 경험한 학생이 10.5%, 금품갈취를 경험한 학생이 8.2%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의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경향은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만 피해비율에서는 차이가 있다. 조수현(2004)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 해 동안 한번 이상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초등학생이 총 67.3%였으나,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7)의 학교폭력 피해율 조사에서는 금품피해가 28%, 협박은 약 20%, 구타는 약 35%로 나타났다. 이 결과들은 본 연구에서 나타난 학교폭력 피해율보다 높은 수치로 이 차이는 사용한 연구 척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수현(2004)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에서 측정하고 있는 폭력의 유형은 놀림, 폭력, 위협/협박, 갈취, 따돌림, 인터넷을 통한 욕설, 망신주기 등과 같은 내용으로 총 8문항으로 되어 있어 본 연구에서 사용한 폭행, 갈취, 위협/협박, 욕설/폭언, 괴롭힘, 따돌림 등의 6가지 폭력 유형보다 다양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실태를 살펴본 반면,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7)의 연구는 중·고등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실태이며 폭력발생 장소를 한정하지 않아 보다 폭력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학교폭력 유형 중 주목할 점은 욕설/폭언을 들었던 학생이 40.7%로 다른 유형에 비해 학생들에게 상당히 익숙한 폭력임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50-60%의 학생이 언어적 폭력을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청소년대화의 광장, 1996)의 수치에 가깝다. 그 다음으로 괴롭힘, 위협/협박, 따돌림으로 폭행이나 갈취 등의 직접적인 폭력이 아닌 간접폭력도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직접적인 폭력의 경우 폭력의 유형과 횟수에 관한 응답결과에서 폭행이나 갈취 피해를 1년에 한 두 번 경험하고 있다는 응답이 각각 7.4%, 7.1%로 나타났는데, 이런 유형의 폭력은 1년에 한두 번 경험한다고 해도 그 후유증이나 충격이 클 것이므로 발생 비율이 낮다고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성 차이를 보면, 학교폭력 6개 유형 중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은 폭행, 욕설/폭언, 따돌림이었다. 직접적 폭력인 폭행 피해율이 남학생 27.5%, 여학생 9.7%로 약 3배의 차이를 보였다. 욕설/폭언의 경우 피해율이 남학생은 80.7%, 여학생은 71.8%이었고, 따돌림은 남학생이 24.1%, 여학생이 34.9%로 유일하게 여학생의 비율이 높았다.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단짝 친구가 매우 중요하며, 친구와 문제가 있을 때 직접적인 물리적 폭력보다는 간접적 폭력인 따돌림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는 전체적으로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약 2-3배 정도 피해를 더 많이 입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한 연구(김선애, 2003)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학교폭력에 보다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선행연구(Boulton & Underwood, 1992; Olweus, 1993)들과 유사한 결과이다. 학년 차이를 보면, 따돌림 유형만 5학년이 6학년에 비해 유의하게 학교폭력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보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최근에 정부와 학교에서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시도하는 과정이며 학교폭력에 관계된 사람들의 관찰과 고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리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당히 높은 가정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부모가 학교폭력에 대해서도 더 예민하며 엄격한 잣대로 폭력을 정의하였을 수도 있다고 본다.

2) 학교폭력 피해경험 유무에 따른 아동의 학교적응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피해경험 유무에 따라 학교적응의 하위요인과 총점에서 차이가 나는지 알아본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하위요인들인 학교에 대한 흥미, 학업성취태도, 학교규범준수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여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아동은 경험이 없는 아동에 비해 전체적으로 학교적응력이 낮았다.

학교에 대한 흥미는 위험요인과 부적인 상관을 보고한 연구(권태철, 2002)와 학교적응에 있어 학교폭력 피해경험을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보고한 조수현(2004)의 연구와도 유사한 결과이다. 이는 청소년이 학교폭력과 같은 위험요소가 있는 상황에서는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또한 생물학적, 환경적 위험요인은 아동의 발달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김선남, 1994; 김진희 외, 1995)과도 일관된 결과이다. 이시형과 동료들은(1997)은 다른 학생들로부터 폭력피해를 경험한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외로움과 우울증 정도가 심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하였다. 청소년의 우울과 불안, 충동성이 학업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김동국(2000)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학교적응에 있어 중요한 요인인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학교폭력을 당하는 이유가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할 때 자신감을 잃고 심리적으로 부적응하게 되며 학교에 가기 싫어하고 학교를 위협적인 장소로 생각하게 되어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하게 된다는 선행연구(김준호·김선애, 2000)들을 참고할 수 있다.

학교폭력의 피해결과로서 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면 학업에

대한 관심 저하, 학교에 대한 호감도의 상실 등 (Boulton & Underwood, 1992; Kochenderfer & Ladd, 1996)이 있다. 학업의 실패, 학교에 대한 호감도의 저하는 외로움의 증가, 친구들 사이에서의 인기상실을 가져온다. 불행하게도 친구들 사이에서 고립되고 인기가 없다는 것은 학교폭력의 표적이 될 가능성을 높여주며(Olweus, 1993), 이는 결국 학교폭력이 되며 만성화되고 반복 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3) 학교폭력 피해아동의 학교적응과 보호요인

학교폭력 피해아동의 학교적응과 보호요인에 관한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면 보호요인 점수가 높은 상집단이 하집단에 비해 학교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 학교폭력을 경험했지만 상대적으로 자아존중감이 높고, 내적통제소재를 더 많이 하며, 부모의 양육태도가 더 민주적이라고 지각하고, 친구와 교사의 지지를 더 많이 받고 있으며, 교과외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학교적응을 잘 하고 있었다.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교적응을 설명하는 변인 중 통제변인으로 투입했던 변인에서 성적, 성, 학년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내적 보호요인이 18%의 설명력을 추가 했고, 대인관계적 보호요인이 투입되어 6% 증가한 43%의 설명력을 보였다. 하지만 사회·환경적 요인인 교과외 활동은 투입했을 때 설명력을 추가하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보호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이 가장 큰 영향력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교사의 지지, 내적통제소재, 친구의 지지, 부모양육태도 순이었다.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는 일반적 특성으로

학교 성적이 보고 되고 있어 성적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서동미, 2003). 기본적으로 자신이 사회관계에 있어 잘 해낼 수 있다는 긍정적인 믿음이 있는 학생이 다른 일에서도 적극적이라고 볼 수 있다.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적극적 대처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감정적 대처나 회피적 대처 등 소극적인 대처 방식은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선행연구(하미진, 2000)가 이를 지지한다. 차유림(2000), Allen 외(1994)의 연구에서 초등학교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고, 자아존중감이 학교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지닌다고 하였다. 학교폭력을 당했지만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생의 경우 피해경험만으로 자신의 가치에 대한 평가를 낮추어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교사의 지지가 학교적응의 보호요인으로 나타난 것은 Ryan(1994)의 교사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지각하는 청소년은 학업적 대처, 관여, 자기 조절, 지각된 통제 면에서 학교생활 적응을 보다 잘 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학생과 교사는 학교체계의 주요구성원으로 학생의 학교적응에 이 둘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양국선·장성숙(2001)의 연구에서도 교사의 지지는 모든 변인들 중에서 학교적응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을 뿐 아니라 잘 적응하는 청소년과 아닌 청소년을 변별하는 주요 보호요인이기도 하다. 교사와 갈등적 관계가 높게 나타나는 학교환경에서 과잉행동과 반사회적 문제가 증가된다(형사정책연구원, 1997, Ouston, Maughan, & Mortimore, 1985; Rutter, 1985, Rutter et al., 1979; Takahashi, 1998)는 연구결과도 교사의 지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교사와의 관계는 학교적응을 해나가는데 주요한 출발점 중

하나이다. 학생과 교사의 관계가 학교적응에 주요한 구성요인이 됨을 감안할 때, 양자간의 신뢰할 수 있고 의존할 수 있는 관계의 수립은 학교적응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상균(1999)의 연구에서 교사의 지지적 환경에 대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변인이 학업태도였는데 이는 학업에 대한 헌신과 열의가 높은 학생일수록 교사의 지지와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에 이들 학생들이 학교를 교사의 지지가 높은 학교환경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통제변인 중 성적이 보호요인에 유의한 영향력을 보인 것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즉, 성적이 좋은 학생이 교사의 지지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며, 교사의 지지를 많이 받는 학생이 학교 환경을 더 긍정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한 가지 보호요인이 다른 보호요인에게 영향을 미쳐 시너지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내적통제소재가 학교적응의 보호요인으로 나타났다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내적통제를 하는 청소년들이 환경적 역경에도 불구하고 보다 적응적이라고 한 Alva와 Padilla(1991)의 연구로 뒷받침된다. 내적통제소재와 학업성취를 관련시킨 선행연구(Nowicki & Walker, 1974)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통제소재와 학업성취간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내적통제자가 외적통제자보다 성취수준이 높았다. 이는 본 연구에서 성적이 학교적응에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해 볼 수 있다. 내적통제자의 경우 학업성취 수준에서 성적이 높다면 학교적응을 잘 할 수 있는 보호요인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보호요인간의 시너지 효과의 가능성을 재확인 시켜준다. 부모양육태도의 경우 역시 학교적응의 보호요인으로 나타났다. 이

는 부모의 민주적 양육태도가 아동의 학교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박현선(1998)의 연구와 일관된 결과이다. Dubois와 동료들(1994)은 학교적응에 대한 가족 환경 및 부모-자녀관계의 영향이 자녀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종단연구를 실시한 결과 가족경험과 학교적응간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는데, 각 부모로부터 거부당한 경험이 있을수록 학교 적응수준은 낮게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학교적응에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친구의 지지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선행연구(박경아, 2002; 양국선·장성숙, 2001)와 일관된 결과이다. 그러나 빈곤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들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보호요인을 살펴본 연구에서는 친구의 지지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상반된 결과가 나온 것은 아동의 위기상황의 원인이 다르다는 점에서 이유를 찾아볼 수도 있다. 학교폭력은 동급생에 의해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므로(김선애, 2003) 학교폭력 피해로 위기상황에 놓인 학생들은 다른 원인에 의해 위기상황에 놓인 학생들에 비해 친구가 오히려 도움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김용태(1997)의 연구에서 따돌림의 경우 친구들이 하나까 덩달아서 자신도 따돌린다고 대답한 학생이 40.7%로 집단적 압력 때문에 따돌림에 동참하게 되기 쉽기 때문에 오히려 친구의 존재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통제변인 중 학년의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 주목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발달단계 후기로 갈수록 학교적응은 높아진다는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

(유윤희, 1994; Rice, 1992)와 상치되는 것으로 이들 연구에서는 주로 대학생과 고등학생의 학교적응을 비교하거나 고등학생과 중학생의 학교적응을 비교했다. 우리나라 교육 현실상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의 진학이나,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의 진학 자체가 보다 적응적인 학생을 선발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학년이 높을수록 학교적응이 높아진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특히 본 연구처럼 한 학제 내에 있는 즉, 초등학교에 있는 학생들 사이에서의 비교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6학년은 5학년에 비해 상급학교로의 진학과 관련된 스트레스로 갈등이 많아질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학교에 대한 흥미나 적응이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성적의 경우 정적인 영향력을 보이는데 이것은 성적이 낮은 학생들의 경우 성적이 높은 학생들에 비해 잃을 것이 적기 때문에, 비행이나 부적응적인 행동을 저지르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점(이상균, 1999)을 참고해 볼 수 있다.

학업태도를 중시하는 학생들의 경우 학교에 대해 보다 적응적인 관계를 가질 것이며 이는 학교를 보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만들고 있다고 볼 수 있다(이상균, 1999). 그러므로 좋은 성적은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성적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교사의 관심과 지지를 많이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 제2의 보호요인을 활성화 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교사의 지지가 있기에 자신감을 갖고 공부에 임해 성적이 높게 나왔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추후 경로분석을 통해 이들의 관계를 더 정확히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서울의 강남에 소재한 초등학교 두 곳을 선정해 학교폭력의 피해실태와 피해경험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및 학교적응의 보호요인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러나 인구학적 배경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한계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져 연구대상의 대표성과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아동의 보고로 학교적응을 살펴봐왔는데 차후 연구에서는 부모나 교사의 보고를 병행하여 결과의 신뢰성을 높였으면 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피해자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으로 여섯 가지에 초점을 두었으나 그 외 사회적 기술이나 의사소통 능력, 책임감, 자기효능감 등 개인특성에 관한 보호요인 등을 부가적으로 첨가하여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상과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연구가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고등학생 위주의 연구에서 학교폭력이 저연령화 되면서 절대 더 이상 안전지대에 있지 않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다는 것에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둘째, 위기상황에서 적응적인 아동과 부적응적인 아동간의 차이를 가져오게 한 보호요인의 발견은 아동의 긍정적인 발달을 유지시켜 주는 보호요인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시사하고 있다. 아동이나 아동 주변의 환경이 가지고 있는 유용한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자원의 내용을 확대함으로써 그 자원의 효과성을 높이는데 기초연구가 될 수 있다는 의의를 가진다.

참 고 문 헌

- 권태철(2002). 청소년 비행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에 따른 학교적응 유연성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동국(2000). 학교사회사업 도입을 위한 청소년들의 학교부적응 요인분석. 부산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봉소(1976). 청년기의 자기개념, 사회적 태도 및 적응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 김선남(1994). 청소년 비행관련 변인간의 인과적 분석. 전남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 김선애(2003).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실태와 경향에 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2(3), 321-336.
- 김용태(1997). **청소년 친구 따돌림의 실태조사**. 서울 : 청소년대화의광장.
- 김정희 역(1999). **스트레스 평가와 대처**. 서울 : 대광문화사.
- 김준호·김선애(2000). 학교주변 폭력에 대한 일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1(1), 89-110.
- 김진희 외 3인(1995). **비행 청소년 상담 및 지원 정책**. 서울 : 청소년대화의광장.
- 박경아(2002) 학교폭력피해자의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 보호요인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박현선(1999). 빈곤청소년의 학교 적응유연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 백양희·최외선(1997). 환경변인 및 내적통제력,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5(2), 33-48.
- 서동미(2003).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지각한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가 폭력 후 대처 방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안정만(2001).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학대 피해경험이 학교폭력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양국선·장성숙(2001). 학교적응유연성과 관련된 보호요인 특성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13(3), 127-148.

- 어주경(1998). 저소득층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 아동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유윤희(1994). 학교적응, 불안, 학업성취간의 관계 분석 : 중,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미리·어주경(1999). 청소년 초기 폭력행동의 유형에 따른 관련 맥락 변인. **한국청소년연구**, 10(2), 119-141.
- 이상균(1999). 학교에서의 또래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시형·이세용·정현희·김형주(1997). 친구관계가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삼성생명 사회정신건강연구소.
- 이시형·이세용·정현희·박현선(1996). 부모-자녀관계와 청소년기 심리사회적 적응. 삼성생명 사회정신건강연구소.
- 이신욱(2003). 가정폭력경험 청소년의 학교폭력과 보호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장현·우 룡(2001). 학교폭력 연구동향에 대한 고찰. **사회과학연구**, 5, 45-63.
- 이정윤·이경아(2004). 초등학생의 학교적응과 관련된 개인 및 가족요인.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16(2), 261-276.
- 이춘재·곽금주(2000). **학교에서의 집단따돌림 : 실태와 특성**. 서울 : 집문당.
- 임영식(1997).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5(3), 1-26.
- 자녀안심운동 서울협의회(2001). **초등학생 학교폭력 실태조사**.
- 조수현(2004). 초등학생 또래폭력 가해·피해집단의 학교적응과 또래폭력에 대한 태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청소년대화의광장(1996). **학교폭력, 고통 받는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서울 : 한울림.
- 청소년보호위원회(2002). 학교폭력실태발표 및 토론회.
- 청소년폭력예방재단(1998). **상반기 학교폭력 전화상담 실태조사**. 서울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 차유림(2000). 아동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하미진(2000). 중학생의 애착과 자아존중감이 스트레스 대처 방식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7). **학교주변폭력의 실태와 대책**.
- 한상철(2001). 청소년 폭력의 위험요인과 보호적 요인에 관한 연구. **교육학연구** 18(1), 203-226.
- YTN(2005. 10. 7). 친구 때려 숨지게 한 중학생 구속.
- Allen, J. P., Hauser, S. T., Bell, K. L., & O'Conner, T. G. (1994). Longitudinal assessment of autonomy and relatedness in adolescent-family interaction as predictors of adolescent ego development and self-esteem. *Child Development*, 65(1), 179-194.
- Alva, S. A., & Padilla, A. M. (1987). *A contextual interaction model of academic invulnerability among Mexican American students*. Los Angeles, CA : National council of La Raza.
- Beam, M., Gil-Rivas, V., Greenberger, E., & Chen, C. (2002). Adolescent problem behavior and depressed mood : Risk and protection within and across social contex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1(5), 343-358.
- Boulton, M. J., & Underwood, K. (1992). Bully/victim problems among middle school children.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62, 73-87.
- Cohen, S., & Hoberman, H. (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 99-125.
- Dubois, D., Felner, R., Mears, H., & Krier, M. (1994). Prospective investigation of the effects of socioeconomic disadvantage, life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early adolescent adjustment.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3(3), 511-522.
- Garnezy, N. (1993). Children in poverty : resilience despite risk. *Psychiatry*, 56, 127-136.
- Garnezy, N. (1985). Stress-resistant children : The search for protective factors. In J. E. Stevenson

- (Eds.), Recent research on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Books Supplement No.4, 213-233. Oxford : Pergamon.
- Garnezy, N. (1971). Vulnerability research and the issue of primary prevention.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41, 101-116.
- Gore, S., & Exkenrode, J. (1996). Contest and process in research on risk and resilience In R. J. Haggerty, L. R. Sherrod, N. Garnezy, M. Rutter. (Eds.), *Stress, Risk and resilience in children and adolescent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ernandez, L. P. (1993). The role of protective factors in the school resilience of Mexican American high school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Stanford University.
- Hoover, J., Oliver, R., & Hazler, R. J. (1992). Bullying : Perceptions of Adolescent Victims in the Midwestern USA.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13, 5-16.
- Kochenderfer, B. J., & Ladd, G. W. (1996). Peer victimization : Cause or consequence of school mal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 1305-1317.
- Masten, A. S. (2001). Ordinary magic : Resilience process in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56(3), 227-238.
- Mcknight, L. R., & Loper, A. B. (2002). The effect of risk and resilience factors on the prediction of delinquency in adolescent girls.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23(2), 186-198.
- Mulrine, C. (1996). *Survey course on the effect of violence in educational settings, Course syllabus*, Montana University Press.
- Luthar, S. S. (1991). Vulnerability & resilience : A study of high-risk adolescent. *Child Development*, 62, 600-612.
- Nowicki, S., & Walker, C. (1974). The role of generalized and specific expectancies in determining academic achievement.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94, 276-280.
- Olweus, D. (1994). Bullying at school : Basic facts and effects of a school based intervention Program. *Journal of Child Psychiatry*, 35, 1171-1190.
- Olweus, D. (1993). *Bullying at school*. Cambridge, MA : Blackwell.
- Olweus, D. (1991). Bully/victim problems among school children. In Pepler, C. & Rubin, K.(Eds.). *The development and treatment of childhood aggression*. Hillsdale, NJ : Erlbaum.
- Ouston, J., Maughan, B., & Mortimore, P. (1985). School influences. In M. Rutter(Ed.), *Scientific foundations. Developmental Psychiatry*, 67-76. Baltimore : University Park Press.
- Rice, K. G. (1992). Separation-individuation, family cohesion and adjustment to college :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45, 203-213.
- Rigby, K., Cox, I., & Black, G. (1997). Cooperativeness and Bully/victim problems among Australian school children.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7(3), 357-368.
- Rotter, J. B. (1990). Internal versus external control reinforcement. *American Psychologist*, 45(4), 489-493.
- Ryan, R. M., Stiller, J. D., & Lynch, J. H. (1994). Representations of relationships to teachers, parents, and friends as predictors of academic motivation and self-esteem.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4, 226-249.
- Rutter, M. (1990). *Psychosocial resilience and protective mechanism*. In J. Rolf, A. s. Masten, D. Cicchetti, K. H. & Weintraub, S.(Eds.), *Risk and protective factors in the development Psychopathology*, 97-119.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utter, M. (1985). Resilience in the face of adversity : Protective factors and resilience to psychiatric disorder.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47, 598-611.

- Sagy, S., & Dotan, N. (2001). Coping resources of maltreated children in the family : A Salutogenic approach, *Child Abuse & Neglect*, 25, 1463-1480.
- Takahashi, S. (1998). When student violence erupts. *Japan Quarterly*, 45(3), 77-83.
- Wenar, C. (1994). *Development Psychopathology : from infancy through adolescence*(3rd Eds.), McGraw-Hill, Inc. 발달정신병리학, 이춘재 외 공역. 서울 : 중앙적성출판사.
- Werner, E. E. (1990). *Protective factors and individual resilience*. In S. J. Meisels & J. P. Shonkoff(Eds.) *Handbook of early childhood intervention*, 97-116. Cambridge, MA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illiams, J. H., Stiffman, A. R., & O'Neal, J. L. (1998). Violence among urban African American Youths : An analysis of environmental and behavioral risk factors. *Social Work Research*, 22(1), 3-13.

2006년 12월 31일 투고 : 2007년 4월 18일 채택